서양문명의 기본적 사고체계 틀을 제공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교회사 이병선 교수

[표제어]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한 철학의 근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추구한 이상적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에서 진리를 추구하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적, 과학적 윤리철학의 두 학파는 차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두 사고 방식이 교차로 때로는 혼합적으로 나타나며 인류 문명사의 특색으로 전개되어가고, 신학적 발전에 각각 공여한다.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철학자이나 그는 저서를 단 한 권도 남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의 사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는 그의 제자 플라톤의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사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그가 소피스트들의 수사학에 대한 도전이자 엘리트 계급에 대한 책망의 결과였고 아테네 민주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연설 정치에 대한 공격이었기에 순수 진리를 추구하던 그가 자초한 결말이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소피스트들에 대하여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에서 계속 비하 공격하였고 이런 이유에서 소피스트들은 괘변론자로 인식되었다. 그러면 플라톤은 스승의 죽음을 어떻게 그리며 그 속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려 하였을까? 이에 대한 답의 일면은 다음 기술되는 그의 '동굴의 일화'에서 볼 수 있다.

동굴에는 죄수들이 기둥에 묶여 한쪽 방향 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었다. 그 반대편에는 모닥불이 있고 그 중간에는 통로가 있어 이곳을 사람들이 떠들며 지나다니면 죄수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서 그 그림자가 실체이고 그림자가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죄수들 중 한 명이 우연히 풀려나게 되고, 손발이 자유로워진 죄수는 벽에 비친 그림자가 실상이 아닌 허상임을 깨닫고 그 실상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된다. 나아가 동굴 밖으로 나와 태양을 바라본 그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죄수는 동굴로 돌아와 동료 죄수들을 풀어주며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허상이며 진리는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 그의 친구 죄수들은 그가 자신들의 환상을 깨는 정신병자라 하며 그를 죽였다는 이야기 이다.

이 동굴의 일화에서 플라톤은 다분히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그 속에서 '이데아'라는 진리의 이상적 세계와 현상계, 즉 진리의 그림자인 현실세계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실상이 아닌 빛에 의하여 투영되는 환영일 뿐인데 사람들이 이를 알아차리기에는 힘이 든다는 교훈이다. 예를 들어 개(dog)의 이상적 모습은 이데아의 세계에 정말 대단하고 완벽한 모습의 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완벽한 개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다양하고 크고 작은 개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는 것이다.

나아가 플라톤은 이 세상의 물질세계는 진실이 아니며 진실된 세계의 모방 내지 카피물이라 주장하였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실이 아니며 잠시 머무르는 것이고 영원하고 진실된 이데아의 세계로 우리는 귀의한다는 사상이다. 이는 기독교 사상과 밀접한 유사성이 있으며, 실제로 후에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이 기독교인이 되어 기독교 사상을 정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플라톤의 이런 이데아 사상은 그의 이상국가론으로 연결된다. 인간의 영혼은 이성, 감성, 욕구 라는 세가지 측면이 있듯이 이는 각각 지혜, 용기, 절제가 따르고 이로서 정의가 이루어지며 이 네가지를 4주덕이라한다. 국가의 경우 지혜로운 통치자가 있어야 하고 용기 있는 수호자 가 있어야 하며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노동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성이 지배하는 지혜로운 통치는 바로 철학자의 몫으로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철인정치를 플라톤은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소수 엘리트주의로 볼 수도 있으며 당시 그리스의 민주정치와는 다른 개념이었다.

플라톤은 인류최초의 학교라 할 수 있는 아카데미아를 설립하여 후배들을 양성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수제자였다. 스승의 뒤를 이어 아카데미를 통해 후배들에게 진리를 전파할 생각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플라톤이 후계자를 그의 조카로 임명하자 아테네를 떠나 고향 마케도니아로 돌아와 리케이온이라는 학원을 설립하고 자신의 학문을 발전시켰다. 그러하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플라톤의 사상도 일부 포함하지만 자신 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들어있다.

플라톤이 이상향을 향한 초월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서 진리를 추구하였다 라고 볼 수 있다. 저 멀리 이상향의 세계에만 진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위의 개체에 진리가 들어있고 또 우리는 사물들을 유심히 관찰함으로써 그 보편적 현상 속에 퍼져있는 진리를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세계는 오직 하나였다. 이를 잠시 철학용어를 빌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형상'이란 보편적인 사물의 본질이며 '질료'는 개체화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찰흙으로 고양이를 빚는다면 고양이 라는 개념은 '형상인'이고 찰흙은 '질료인'이 되는 것이다. 플라톤의 입장으로 설명하자면, 고양이라는 이상적 이미지 상의 형상을 염두에 두고 흙으로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내기에 조각가의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 여러 가지 고양이 모습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러하기에 그 이상적 고양이의 상이 현실화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작가가 만든 고양이 상은 찰흙과 고양이의 이미지가 혼합하여 이루어 진 것이고 이 때문에 진흙으로 만든 고양이 상을 결코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형상과 질료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역사신학자인 필자의 입장에서 형상과 질료의 설명)

이런 개념과 부합하여 변화하는 물체 또는 움직이는 물체에는 어떤 동력이 가해져야 움직임이 있

는 것인데 이런 동력의 동력 즉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동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물들은 모두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최고의 아름다움 내지 선(good)을 갖춘 완전태가 만물의 텔로스(목적)로 존재하며, 이런 완전태 내지는 최초의 동력을 '원동자'라 한다. 이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만물을 변하게 하는 부동의 원동자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이라 보았다. 그러하기에 신의 개념적 차원에서 본다면, 플라톤의 일자(Oneness)는 후에 신플라톤주의의 귀의법칙에 의하여 유대-기독교적 하나님과 설명이 비슷할 수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개념은 비인격적이고 과학적 성향의 신에 대한 설명이다. 신학 학술적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플라톤주의는 후대 기독교의 확산에 따라 종교성의 설명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특색인 논리성, 과학성으로 잠시 기독교 문명에서 홀대를 받다가 비잔틴문화와 중동지역에서 각광을 받았으며 중세 중반기 서구의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부활로 스콜라철학이 발생하여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시도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환영을 받은 중동지역에서는 중세시대에 획기적 과학 발전이 이루어 지고 이런 기풍이 십자군전쟁을 기화로 유럽에 도입되면서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지 않기에 차츰 풀어나가기로 하고, 이번 호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만이라도 우리가 알아 둔다면 향후 전개될 기독교 사상과 문명의 변화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아테네 학당>의 부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 학당> 라파엘 작품, 1509-11, 바티칸 시국